

2025년 01월 09일 (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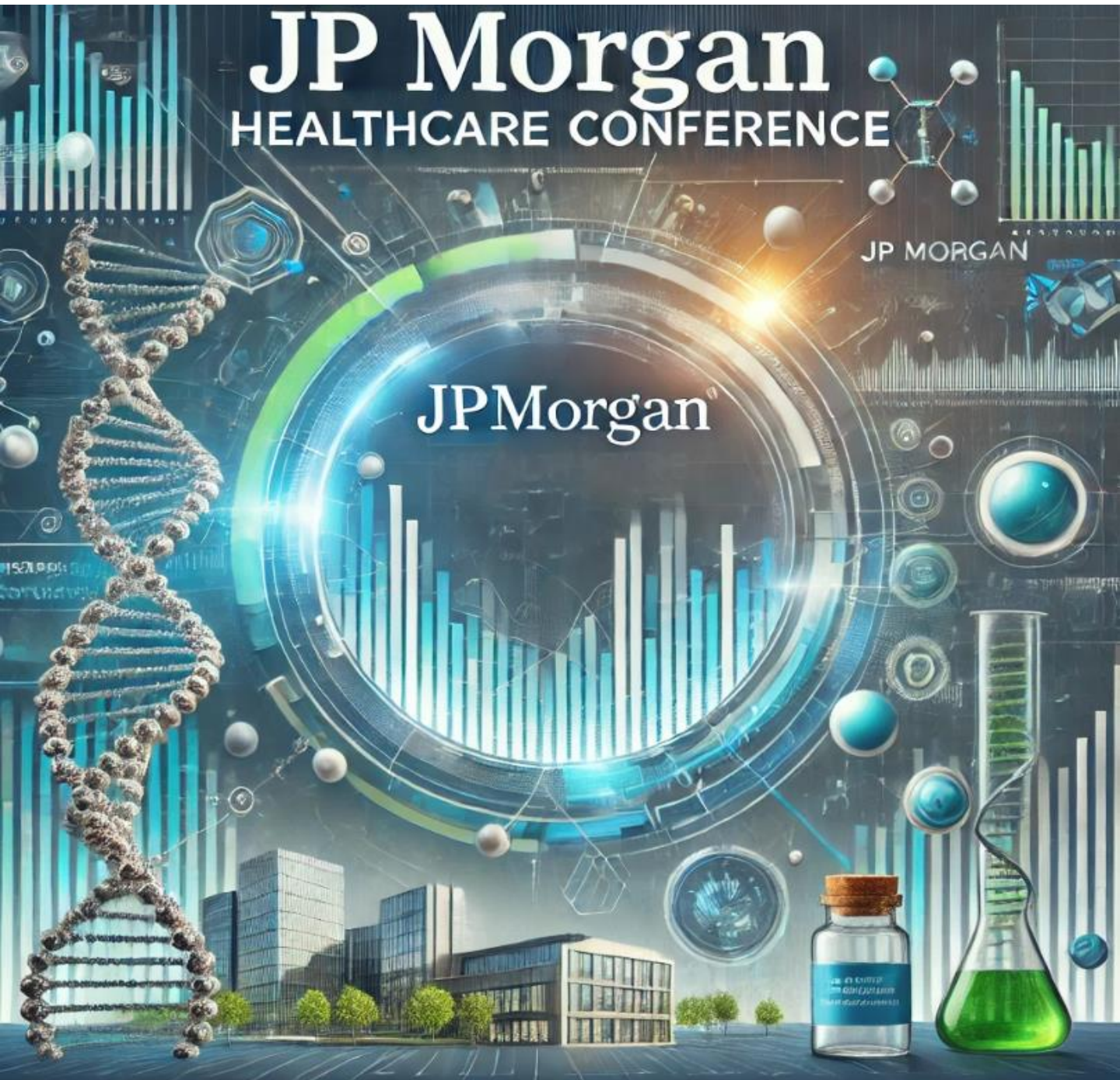
GROWTH
RESEARCH

Analyst. 김주형, 박재은, 정소연

[JPMHC 2025 산업보고서]

GROWTH Industry

'빅딜 무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2025 개막: 올해 키워드는?



목차

Part 1.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JPMHC) 개요

Part 2. 핵심 주제 및 트렌드

Part 3. 주요기업 관전 포인트

Part 4. 관련기업

기업분석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288330)

디앤디파마텍(347850)

Intro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JPMHC)가 다가오는 1월 13일에 개최된다. JPMHC는 세계적인 의료·제약 산업의 주요 리더가 참여해 신약 파이프라인을 소개하고 비즈니스 동향을 논의해 기술수출 방안 등을 모색하는 세계 최대규모의 투자 행사이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제약·바이오 기업 550곳이 참가하여 글로벌 제약·바이오의 트렌드와 각 기업이 가진 유망 기술, 비전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과거 JPMHC 기간에 다수의 국내외 기업이 기술이전 계약을 맺거나 M&A를 공개해왔기에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 JPMHC 2025의 주요 키워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ADC, GLP-1'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관련 기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행사에서는 특정 국내 기업이 발표를 맡아 글로벌 무대에서 각사의 경쟁력을 피력할 예정으로 발표를 맡은 기업과 그 내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JPMHC 2025핵심 주제 및 트렌드와 행사에서 발표를 맡은 주요기업의 관전 포인트를 기술했다. 또한 JPMHC 2025의 핵심 주제와 접목된 국내 상장기업을 분석하였다.

1.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JPMHC) 개요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행사

JPMHC는 세계적인 의료·제약 산업 주요 리더가 참여해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동향을 논의하는 세계 최대 제약 바이오 행사이다. JPMHC는 1983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1월에 개최되고 있으며 행사에서는 국내외 다수의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 개발 성과와 신규 파이프라인, 혁신 플랫폼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자사 경쟁력을 소개한다. JPMHC에서는 글로벌 제약·바이오의 트렌드와 각 기업이 가진 유망한 기술 등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글로벌 시장 진출,
투자 유치의 포문

JPMHC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바이오 기업들에게 글로벌 투자자 및 파트너들과 협업 가능성 확대와 기술이전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길목으로 여겨진다. '18년 JPMHC에서 유한양행은 폐암 치료제 '렉라자(레이저타닙)'를 안센에 약 1조 4,000억 원 규모로 기술 이전하는 성과를 이뤄냈으며 에이비엘바이오는 '22년 JPMHC를 계기로 사노피와 1조 2,410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다. 또한 컨퍼런스에서는 매년 제약, 바이오, 의료기술 기업들의 M&A도 집중 발표되어왔다. 특히 '23년에는 아스트라제네카가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사 알렉시온을 390억 달러에 인수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JPMHC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이 글로벌 빅파마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기술 이전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다. 글로벌 바이오 트렌드를 비롯해 새로운 투자 기회를 엿볼 수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1.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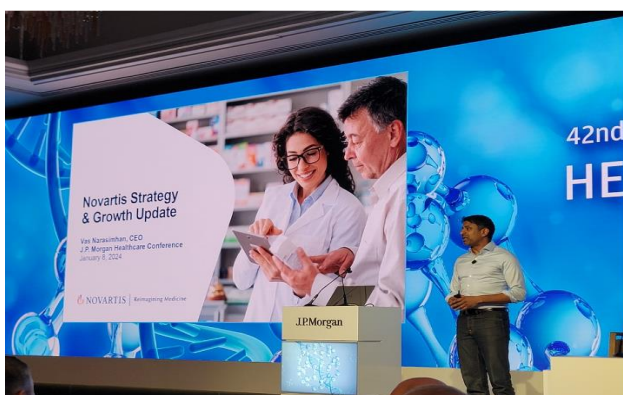


그림 2.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개요

주최	JP모건
개최 시기	매년 1월
개최 장소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요 대상	글로벌 제약 바이오 기업 및 투자자, 업계 전문가
주요 내용	제약·바이오 산업 동향, IR 기반 기업 발표, 투자 및 파트너십 기회 모색

2. JPMHC 2025 핵심 주제 및 트렌드

2025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오는 1월 13일부터 16일 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제약·바이오 기업 약 550곳과 8,000여 명의 투자자 및 업계 전문가가 등이 참가할 예정이다.

주요 KEYWORD:
트럼프, ADC, GLP-1

이번 2025 JPMHC의 주요 키워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ADC, GLP-1'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1) 트럼프 2기 행정부** : 올해 1월 20일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헬스케어 정책 변화가 주목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직전 동향을 살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의 교체를 발판으로 헬스케어 정책관련 규제 완화에 따른 M&A 확대가 기대된다. 또한 약가 인하, 생물보안법 등에 관한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 2) ADC (항체약물 접합체)** : 항체와 세포독성 항암화학 페이로드, 그리고 이 둘을 접합하는 링커로 구성된 치료제를 말하며, ADC 기술은 항체가 정상 세포에는 약물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 치료지수를 높일 수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주목받고 있는 키워드이다.
- 3) GLP-1 (클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 GLP-1이 비만 치료 및 당뇨병 예방을 비롯해 심혈관 질환, 치매 등 새로운 적응증으로 확장되고 있다. JP모건 리서치에서는 '30년까지 미국 인구의 9%에 해당하는 인구가 GLP-1을 사용할 것으로 예측한 만큼 GLP-1 시장의 확장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3. 2025 JPMHC 포스터



그림 4. 2025 JPMHC 주요 키워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바이오 정책 변화 간접 논의 전망
ADC (항체약물접합체)	항체가 정상 세포에는 약물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기술
GLP-1 (클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심혈관 질환, 당뇨병 예방 등 새로운 적응증 확장

3. JPMHC 2025 주요기업 관전 포인트

CDMO, ADC 기업 다수

이번 JPMHC 2025에서는 다수 기업들의 연간 사업 로드맵과 R&D 현황이 공유될 예정이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서는 CDMO, ADC와 관련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롯데바이오로직스가 발표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3.1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내 1위 CDMO(위탁개발생산) 업체로, 현대 60만 4천 리터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인천 송도 바이오캠퍼스에 '25년 내 완공을 목표로 5천리터 규모의 ADC(항체약물접합체) 전용 생산시설을 건설하고 있으며, 우수 ADC 기술 보유 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등 행사 메인 키워드로 좁혀진 ADC 사업으로의 진출 방향성이 주목을 받고 있다.

기업 가치 슬로건 4E(Excellence)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행사의 주최인 JP모건 측으로부터 9년 연속 공식 초청되어 행사의 메인트랙이라고 할 수 있는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발표를 맡은 존림 대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연간 누적 수주액 5조원을 돌파하여 최고 실적을 기록해 온 만큼, 기업가치 슬로건으로 내세운 **4E(Coustomer Excellence, Operation Excellence, Quality Excellence, People Excellence)**를 주제로 기업의 성장 배경과 사업 및 중장기 로드맵을 설명할 계획이다.

그림 5. 2023 JPMHC 삼성바이오로직스 발표



그림 6.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 캠퍼스



3.2 셀트리온

셀트리온은 지난해 12월 100% 자회사로 CDMO 전문기업인 **셀트리온바이오 솔루션스**를 신설해 출범한다고 공시했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10만리터 규모의 1공장 착공에 돌입할 예정이며, 신규 생산시설에서는 ADC와 같은 다양한 접근법의 치료제들을 유연하게 생산할 수 있도록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9년에 ADC 신약 출시 목표

셀트리온은 이번 JPMHC 컨퍼런스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마찬가지로 메인트랙인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ADC 항암 신약과 다중항체 신약 파이프라인과 후속 바이오시밀러 개발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셀트리온바이오솔루션스의 신설을 기반으로 **셀트리온의 CDMO 비전**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3.3 롯데바이오로직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22년 브리스톨마이어스스퀘프(BMS)의 생산공장을 인수하여 CDMO 사업을 시작했다. 지난해 인천 송도에 바이오 캠퍼스 1공장을 착공하였으며 미국 시러큐스 바이오 캠퍼스에서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시러큐스 바이오 캠퍼스 증설

CDMO 전문 기업으로서 발돋움하기 시작한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이번 JPMHC에서 **CDMO 사업에 대한 계획과 시러큐스 ADC 생산시설 증설 등을 발표하며 신규 파트너십 또한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7. 셀트리온바이오솔루션스 사업 로드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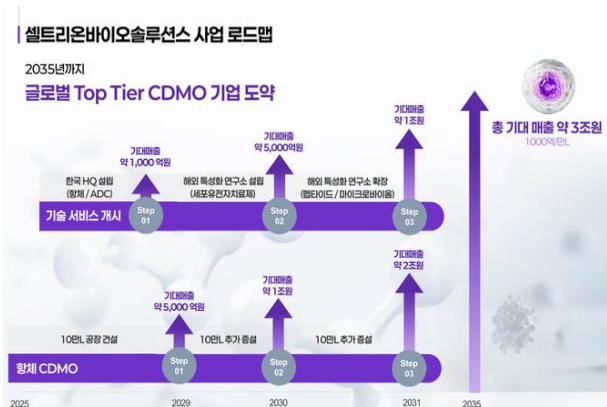


그림 8. 롯데바이오로직스 바이오 캠퍼스



자료: 셀트리온바이오솔루션스, 그로스리서치

자료: 그로스리서치

4. 관련 기업

그림 9. JPHMC 2025 관련 기업 요약

기업명	기업 개요	시가총액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 (2883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년 설립. '19년 코스닥 상장 주요 사업: 특발성 폐섬유증 및 암 질환 치료 신약 연구 개발 매출 비중: 기술이전(개발과제 등) 0%, 기타매출(특허권 등) 100% 국내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을 비롯해 JPHMC 2025 메인트랙 발표 임상 2상 마무리 단계인 특발성 폐섬유증(IPF) 치료제 후보물질 BBT-877 임상 데이터 발표로 빅파마들과의 기술이전 계약 가능성 검토 	2,344억원
온코닉 테라퓨틱스 (4760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년 설립, '24년 코스닥 상장 주요 사업: 위산 유발 소화기질환 및 항암 분야 글로벌 혁신신약 연구개발 매출 비중: 기술이전 100%, 제품 판매 0% P-CAB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자큐보 출시 및 해외 21개국 기술 수출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JPHMC 2025 통해 전략적 미팅 집중 추진 계획 차세대 합성치사 항암 신약 후보물질 네수파립의 임상 2상 데이터 토대로 네수파립 글로벌 시장 진출 본격화 계획 	1,759억원
삼성 바이오로직스 (2079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년 설립, '16년 유가증권시장 상장 주요 사업: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 및 세포주/공정 개발 서비스 제공하는 CDMO 매출비중: CDMO 65.3%, 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상업화 34.7% JPHMC 2025 통해 기업 가치 슬로건과 CDMO 사업 로드맵 공개 계획. 차세대 파이프라인으로 ADC 사업 추진 중, 연내 ADC 공장 완공 및 가동 목표 	67조 3,306억원
셀트리온 (0682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91년 설립, '05년 코스닥 상장, '18년 유가증권시장 이전 완료 주요사업: 종양 및 자가면역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항체의약품 개발, 생산 및 판매 매출비중: 바이오의약품 90.3%, 케미컬의약품 9.7%, 기타 0% '29년 첫 제품 상업화 목표로 추진 중인 ADC 신약 3종, 다중항체 신약 3종 개발 JPHMC 2025 통해 ADC 항암 신약 개발 성과 및 CDMO 비전 공개 계획 	39조 8,773억원
디앤디파마텍 (3478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14년 설립. '24년 코스닥 상장 주요 사업: GLP-1 계열 경구용 비만/MASH 신약 개발 바이오 기업 매출비중: 라이선스 매출 8%, 용역매출 92% JPHMC 2025에서 MASH 치료제인 DD01 임상 2상 결과 및 알츠하이머병 타겟 물질인 NLY02 선보일 계획 경구용 GLP-1 계열 비만치료제 DD02S 등을 비롯해 바이오파마 관심 증대 	6,341억원

펩타이드 기반 혁신신약 연구·개발 전문 기업

동사는 '14년 설립, '24년 코스닥 시장에 기술성장기업으로 상장되었으며, GLP-1 등 펩타이드 관련 기술을 기반으로 비만, MASH(대사이상 관련 지방간염), 대사성질환, 퇴행성 뇌질환 등 미충족 의료수요가 높은 질환군에 대한 신약을 연구·개발하는 회사이다. 동사의 핵심 신약 파이프라인으로비만, MASH 등의 대사성 질환 파이프라인과 퇴행성 뇌질환, 섬유화 질환 등이 있다. 주요 주주로는 최대 주주 및 특수 관계인 21%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JPMHC 2025 핵심 주제 'GLP-1'

올해 JPMHC 핵심 주제가 GLP-1이 될 것으로 예견되는 만큼, 동사의 GLP-1 계열 비만치료제와 더불어 뇌질환, MASH치료제, 당뇨병 예방 등 새로운 적응증으로 파이프라인 개발 활성화가 기대된다. 동사는 창업 초기부터 GLP-1 펩타이드 기반의 신약 개발에 집중했던 기업으로 GLP-1 계열 펩타이드 중심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다수 구축해왔다. 특히 MASH 치료제인 DD01은 임상 2상을 진행 중이며, 뇌 신경염증을 억제하는 NLY01은 임상 2상을 완료했다. GLP-1 계열 치료제의 적응증 확대 로 GLP-1 약물의 시장 규모는 '24년 400억 달러에서 '29년 1,050억 달러 이상의 규모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견된다. 이에 GLP-1 치료제에 강점이 있는 동사의 꾸준한 성장이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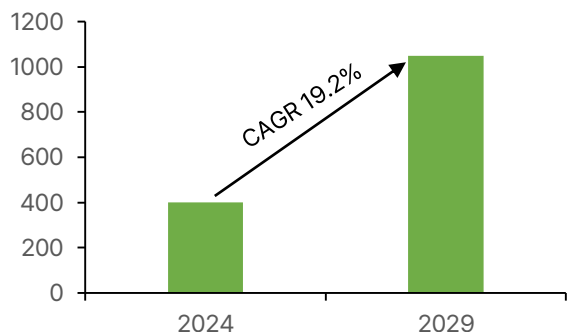
HOT한 비만치료제, 경구용 비만치료제 No.1으로 도약

비만치료제 시장이 여전히 뜨거운 가운데 비만치료제의 트렌드가 주사제에서 경구제로 바뀌고 있다. 경구용 비만치료제는 높은 편의성과 가격 경쟁력으로 환자의 선호도가 높으며 동사 역시 차세대 경구용 비만치료제 파이프라인을 개발 중이다. 특히 동사는 미국 멧세라(Metsera)와 약 1.1조원 규모의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GLP-1 계열 경구용 비만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동사의 대표 경구용 비만치료제는 DD02S로 현재 글로벌 임상 1상을 진행 중이다. 글로벌 제약사 중 노보노디스크만이 경구용 GLP-1 비만치료제인 리벨서스(Rybelsus)를 판매 중이지만 동사의 DD02S는 전임상에서 리벨서스 대비 12배 높은 경구 흡수율을 보인 것으로 확인된다. 뛰어난 약효와 더불어 멧세라의 대규모 자금 지원으로 경구용 비만치료제 개발이 빠르고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12. 동사 주요 파이프라인



그림 13. GLP-1 계열 약물 시장 성장 규모





GROWTH RESEARCH

Compliance Notice

-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동 자료는 투자 판단을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용일 뿐 해당 주식에 대한 가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투자판단은 본인 스스로 하며, 투자 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동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당사는 해당 자료를 전문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작성자는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을 발간 전에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발간 후에 매수·매도할 수 있습니다.
 - 동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그로스리서치에 있습니다.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사 및 복제, 대여를 할 수 없습니다.
-